

# 그곳에 심문규라는 소방관이 있었다



경인일보

김우성 기자



김포 신곡수중보 소방관 실종 당시 백마도에 꾸려진 사고대책본부에 기자 중 유일하게 현장에 남아 취재를 했었다.

지난해 여름 소방관들과의 평범한 저녁자리에서였다. 임종만 재난예방과장님을 비롯해 김포소방서에 새로 부임한 분들과 첫 사석이었다. 경기 광주소방서에 소속돼 있다가 발령받아 왔다는 임종만 과장님은 취기에 김포소방서 한 젊은 대원과의 개인적인 추억을 꺼냈다. 과거 각별한 인연으로 만났는데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는 얘길 하며 그는 눈시울을 붉혔다. 2018년 여름, 전 국민의 애를 태운 김포 신곡수중보 소방관 순직사고의 희생자, 심문규 대원에 대한 이야기였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임 과장님은 심 대원과의 애

뜻했던 일화를 하나씩 떠올렸다. 나도 심문규 대원을 알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술이 넘어가는 등 마는 등 하면서 임 과장님의 상기된 표정과 입 모양만 눈에 들어왔다. 나의 출입처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내가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지금 여기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아무렇지 않은 일상을 살고 있다는 데 죄책감 같은 감정이 느껴졌다.

집에 돌아와 오래 묵은 취재수첩을 찾아냈다. 현장에서 긴박하게 적어 내렸던 메모가 나를 5년 전 여름 신곡수중보로 데려갔다. 적막한 가운데 비장한 눈빛으로 물을 오가던 수색 대원들, 적당히 서늘했던 밤바람, 낮이 나간 채 앉아 있던

실종자 가족이 눈앞에 되살아났다. 새삼 너무 잊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에도 많은 사건사고를 겪었기에, 그날 술 자리에서 우연히 심 대원 얘기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신곡수중보에서의 기억은 나의 기자인생에서 하얗게 날아갔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한가로운 일요일 정오쯤 시각 사고소식을 접했었다. 나는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기자였다. 경기도지사과 김포시장 등이 사고대책본부에 당도했을 때 언론중 유일하게 카메라에 담았을 만큼 나는 일찌감치 현장에 머물고 있었다. 대책본부가 꾸려진 한강하구 백마도는 군사구역이었다. 늦은 오후 공식 언론브리핑이 끝나자 관찰부대 군인들은 기자들이 현장에서 빠져나가도록 안내했다. 그 무리에 휩쓸려 나갔다가는 제대로 된 취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나는 평소 안면이 있는 공무원에게 읍소해 안전통제요원 조끼를 빌려 입었다. 그렇게 신분을 숨기고 밤늦게까지 백마도에 남아 실시간으로 현장 기사를 출고했다.

유족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궁금했다. 궁금했다기보다는, 잘살고 있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 심문규 대원에게는 옛된 아내와 사고 1년 전 태어난 쌍둥이 아들이 있었다. 남편의 생환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내를 백마도에서 봤었다. 임종만 과장님과 의 저녁자리를 계기로 심문규 대원이 내 기억에 소환되고부터는 문득문득



심문규 대원이 쌍둥이 아들을 안고 있다. 유족이 제공한 사진으로, 기사에 보도되지는 않았다.

백마도에서의 그 광경이 생각났다. 심 대원 가족은 잘 이겨내고 있을까. 아이들은 이제 아빠가 자랑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까.

순직 5주기를 맞아 특집 기사를 내고 싶었다. 소방서 측 협조를 얻어 아내에게 인터뷰 섭외메시지를 보냈다. 남편을 측은하게 묘사하지 않겠노라고 약속했다. 내 판에는 좋은 취지라 해도, 고인을 또 유족을 조금이라도 욕되게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기사 출고 전 미리 보여주겠다고도 약속했다. 한참이 지나서 만나겠다는 답장이 왔다.

2023년 8월8일, 김포의 외진 카페에서 아내 조섯별 씨를 만났다. 사고 후 처음으로 언론 취재에 응하는 거라고 했다.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된 심문규 대원과 오동진 대원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이겨내는 건 없다고 했다.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 했다. 수줍게 웃어 보이는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렸다. 기사의 방향은 정해진 게 없었다.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는 다음 문제였다. 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었더니 조 씨도 이내 마음을 열고 남편을 편안하게 추억하기 시작했다.

2012년 2월의 추운 아침이었다고 했다. 김포 고촌읍 동물병원에 체육복 차림의 한 사내가 강아지를 안고 들어왔다. 강아지는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아침저녁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태였다. 동물병원에서 일하던 조섯별씨는 그때부터 1년 넘게 직원과 고객으로 그를 대면했다. 사내가 출근하면서 강아지를 데려와서는 퇴근할 때 데리고 가는 일상이 반복됐다.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다. 비

가 오면 비를 맞은 채 강아지와 안고 들어왔다.

웃는 인상이 서글서글했지만 그는 감정표현에 서툰 마산 사나이였다. 시답잖은 농담 한 번 하는 법이 없었다. 그런 사내를 동물병원 사람들 모두가 좋아했다. 조씨는 “아프거나 일이 바쁘면 못 올 수도 있을 법한데 사람이 한결같았다”며 “당시에는 그냥 ‘아 결혼은 저런 사람이랑 하는 건가’ 싶었다”고 회상했다.

2013년 11월 어느 날 조 씨는 독감을 심하게 앓았다. 어디에도 내색한 적이 없었는데 그가 쌍화탕과 감기약을 사 들고 나타났다. 조 씨는 “그걸 건네기까지 고민이 많았을 거라 생각하니 고마웠다”고 돌이켰다. 그해 크리스마스에 두 사람은 함께 영화를 봤다. 직장인 김포소방서 수난구조대가 바라다보이는 한적한 거리에서 사내는 자신을 한 번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고백했다. 조 씨는 행복한 미소로 답을 대신했다. 첫 데이트에 돼지갈비집으로 안내한 투박함이 싫지 않았다.

심문규 대원과 조 씨는 2015년 5월 결혼해 2017년 아들 쌍둥이를 낳았다. 심 대원은 슈퍼맨 같은 남편이었다. 청소며 빨래며 정리정돈이며 뭐든 열심히 하고 2교대 격무 속에서도 아내의 아침 식사를 챙겨놓고 출근했다. 더워도 덥다고, 추워도 춥다고 표현하지 않았다. 나지막한 경상도 사투리로 ‘개안타. 개안타’

